

로봇과 드론, 수소 모빌리티가 함께하는 미래의 새만금 「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」 수상작 선정

-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투표를 거쳐 총 8개 작품 선정

-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미래의 새만금을 인공지능(AI)으로 그려낸 「2026 새만금 AI 영상 공모전」의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고, 7월 14일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공모전은 새만금과 인공지능(AI)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, 미래 수변도시와 교통체계, 친환경에너지, 스마트산업단지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다.
- 최종 심사는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여 공정성과 국민 참여를 모두 담았으며, 국민투표는 지난 6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국민 소통 플랫폼 '소통24'를 통해 진행하여 총 1,700여 명이 참여해 미래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.
- 수상작은 ▲최우수상 '새만금, 미래를 연결하다'(이연경) ▲우수상 'Green Pulse, 새만금의 심장(강신우), H2, 새만금의 미래로(김건오) ▲장려상 '할아버지의 바다, 손녀의 도시'(김현영), '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를 그립니다.'(임은수), 'A Boy's Imagination, 한 소년의 상상'(정유선), '사람의 빛, 새만금'(김세환), '세계 최고 수준의 수변도시, 새만금 미래도시 여행 VLOG'(김세호) 등 총 8개 작품이 선정됐으며,

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150만 원, 우수상 2팀 각 50만 원, 장려상 5팀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.

- 최우수상에 선정된 '새만금, 미래를 연결하다' 작품은 수소 모빌리티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등 미래 첨단도시로 성장하는 새만금의 비전을 표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.
- 아울러, 우수상과 장려상에 선정된 작품들도 인공지능(AI)과 로봇이 사람들의 교통안전을 지키고, 가사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시티, 드론과 도심항공교통이 하늘을 누비고, 자율주행 셔틀이 운행하는 미래도시 교통인프라 등의 영상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.
- 새만금개발청은 수상작을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, 다양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해 국민과 함께 미래 새만금의 비전을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“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희망하는 미래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, 앞으로도 미래의 새만금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 이어 “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대변인실	책임자	과 장 이상필 (063-733-1200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수 (063-733-1201) 주무관 이진우 (063-733-1209)